

보도해명자료 (‘16.11.1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현대차, 미르 대가 ‘특혜 의혹’”

(16.11.15, 내일신문)

1. 기사내용

- ☐ 정부의 현대자동차 수소차 지원방안이 미르재단 출연에 대한 대가성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정부의 수소차에 대한 정책이 미르재단 출연에 대한 대가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
- ☐ 정부는 친환경차의 확산 트렌드에 대응하여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
- ‘98년부터 기술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제1~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본계획 등을 통해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에 대한 기술개발, 보급 등 추진
- 금년에도 미세먼지 대응 및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수소차 보급확대,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·발표함
- ☐ 수소차는 향후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 대응하여 시장 선점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정부는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부 자동차항공과 이원주 과장(044-203-4320)
손용하 서기관(044-203-4327)